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505장** ..... **다같이**

1.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해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2.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것 나 증거 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3.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입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후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누가복음 9:1-6** ..... **인도자**

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3.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5.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6.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설 교** ..... **“선교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선교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누가복음 9:1-6

영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크리스천은 아마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다. 그는 미전도 종족 전도자이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다. 그는 33년 선교하면서 아내와 아들을 잃었고, 자신의 왼팔도 사자에게 찢겼는데 그는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다. 그가 쓴 마지막 글은 “세상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돕는 모든 사람들, 미국인, 영국인, 터키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길”이다. 어린 시절에 설교가 끝나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리빙스턴은 드릴 헌금이 없어서 헌금 바구니에 몸을 담아 앞으로 나왔다. 헌금이 없어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다. 리빙스턴은 혈혈단신으로 오지에 들어가 선교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14:18)는 말씀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는 두 말씀을 붙들고 지냈다. 그는 누가복음 9:1-2을 바탕으로 ‘선교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지금 시대의 정신은 궁핍이며, 그것은 무수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겠다는 그들의 생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선교사들이 수백만 명을 개종시킬 수 있다는 비전은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어떠한 선교도 전적으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때로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분의 위대한 생각으로 일하시며, 모든 나라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회개를 이루시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가 선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궁창의 빛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현대 이민의 조류는 서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은 곧 실현될 것입니다. ▶그의 설교처럼, 지금 우리는 세계화, 도시화, 다문화라는 환경에 있다. 한국인은 185개국에 750만 명이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고, 한국 내에도 200만 명의 이주민과 3만 명의 탈북자가 있다. 아시아의 복음화율은 7%로서 아시아는 아시안에 의해서 복음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선교사역으로 부르고 계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신 다음,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보내셨다. 그동안 배웠으면 나가서 사역해야 한다. 교회의 최고 훈련과정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제자가 보냄을 받으면 사도가 되어 돌아온다. 선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업이다.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의 실패다. 당신의 실패가 아니다. 낙심의 먼지를 발에서 떨어 버리고 다음 마을로 가야 한다. 땅끝까지 가야 한다. 땅끝이란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다.